JAEGER-LECOULTRE

소개

# 아한 판데이

## 예거 르쿨트르, '디 아워 비포(The Hour Before)'를 통한 새로운 프렌드 오브 하우스 발표

**주요 정보:**

- **다재다능한 배우:** 영화, 패션,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선한 감각을 보여주는 아한 판데이(Ahaan Panday)
- **동시대적이면서도 색이 뚜렷한 스타일:** 아한 판데이의 모던한 감각과 예거 르쿨트르의 절제된 세련미가 이루는 자연스러운 조화
- **'*디 아워 비포*'에서 드러나는 존재감:** 영화적 창의성과 워치메이킹의 시대를 초월한 품격이 만나는 순간

예거 르쿨트르가 아한 판데이를 프렌드 오브 하우스로 맞이합니다. 인도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신예 배우인 아한 판데이는 배우로 이름을 알리기 전부터 카메라 뒤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번 만남은 창의적 정체성을 만들어온 경험과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되짚어보는 예거 르쿨트르의 인터뷰 시리즈, '*디 아워 비포*'를 통해 공개됩니다.

### 호기심과 장인 정신을 향한 존경심에서 탄생한 여정

아한 판데이의 영화계 데뷔는 갑작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여정은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연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카메라 뒤에서 영화 제작의 다양한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전문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배우로서 주목받기

전부터 현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 참여하며, 창작의 토대가 되는 치열한 노력과 협업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아한 판데이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영화 <*떠돌이별(Saiyaara)*>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지만,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향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동시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에 깊은 존중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거 르쿨트르의 철학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습니다.

발레드주의 매뉴팩처 아틀리에에서도 하나의 타임피스는 수많은 장인의 손을 거쳐 탄생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와 각 분야의 장인들의 전문성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합니다. 카메라 앞과 뒤를 오가며 영화 제작의 여러 과정을 경험해 온 아한 판데이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의 여정은 예거 르쿨트르가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온 시간의 가치와도 연결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헌신을 통해 비로소 완성됩니다.

**모던한 품격을 표현하는 놀라운 감각**

아한 판데이는 창의적인 개성만큼이나 매력적인 스타일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유행을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감각으로 스타일을 풀어내며, 클래식한 테일러링부터 여유롭고 편안한 실루엣까지 오갑니다. 상반되는 스타일 모두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개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절제된 자신감은 예거 르쿨트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메종은 진정한 우아함이란 과시가 아닌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여기며, 깔끔한 디자인과 섬세한 디테일을 통해 세련된 감각이 느껴지는 시계를 제작해 왔습니다. 유산에 깊이 뿌리를 두면서도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메종의 작품들은 유행을 넘어 착용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줍니다.

아한 판데이 역시 하나의 스타일에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익숙한 클래식 스타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해 자연스럽고 현대적인 분위기로 완성합니다. 리베르소는 이러한 정신을 구현하는

타임피스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징적인 디자인과 뚜렷한 개성을 간직해 세대를 넘어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한 판데이와 예거 르쿨트르가 보여주는 스타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스타일은 결코 인위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개성, 그리고 자신만의 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 *디 아워 비포:* 정체성을 빚어내는 숙련의 시간

예거 르쿨트르는 *'디 아워 비포'* 시리즈를 통해 아한 판데이와의 새로운 여정을 소개합니다. 아한 판데이가 직접 리베르소 케이스를 조립하는 과정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인터뷰는, 카메라 밖 인터뷰어와의 편안한 대화 속에서 메종의 세계관과 아한 판데이의 경험을 연결해 나갑니다. 인터뷰는 워치메이킹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그의 가치관, 추억, 그리고 관점으로 이어지며 차분하고 진솔한 순간들을 담아냅니다.

'*디 아워 비포*'는 단순한 인터뷰를 넘어 한 사람의 진정성 있는 내면을 조명하는 시리즈로, 특별한 인터뷰 형식을 통해 절제, 반복, 팀워크,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친 성장 등 장인 정신과 예술의 공통된 가치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방식으로 촬영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아한 판데이의 따뜻하고 진솔한 면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너머에 있는 그의 모습을 들여다볼 특별한 기회를 선사합니다.

CEO 제롬 랑베르(Jérôme Lambert)는 "아한 판데이를 예거 르쿨트르 패밀리의 새로운 일원으로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한 판데이는 호기심이 많고 목적의식이 뚜렷하며, 계속해서 발전하려는 열정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 보면 예거 르쿨트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도 이어집니다. 진정한 탁월함이란 오랜 시간에 걸친 헌신과 정확성, 장인 정신을 향한 끝없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랑 메종은 '*디 아워 비포*'에서 이런 공통된 철학과 더불어 탁월함을 향한 부단한 노력이라는 워치메이킹의 핵심 요소를 조명하고자 합니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한 판데이와 예거 르쿨트르의 만남은 진정성과 균형감, 그리고 장인 정신에 대한 깊은 존중을 공유하는 인물들과 함께해온 예거 르쿨트르의 여정을 더욱 확장합니다.

---

**아한 판데이 소개**

아한 판데이는 인도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신예 배우입니다. 그는 2025 년 인도 영화 역사상 최고 흥행작인 <*떠돌이별(Saiyaara)*>로 데뷔한 이후, 발리우드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급부상했습니다. YRF 에서 아딧야 초프라(Aditya Chopra)의 지도를 받으며 7 년간 경험을 쌓은 그는 스크린에서의 존재감과 모던한 감각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배우로 활동하기 전에는 영화 <*더 레일웨이 맨(The Railway Men)*>과 <*마르다니 2(Mardaani 2)*> 등 여러 촬영 현장에서 제작 스태프로 활약하며, 스토리텔링과 영화 제작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혀왔습니다. 이제 그는 영화를 넘어 럭셔리, 패션, 문화까지 활동 범위를 확장 중입니다. 유명 영화감독인 알리 아바스 자파(Ali Abbas Zafar), 모히트 수리(Mohit Suri)와 함께 차기작을 준비하며 돋보이는 커리어를 쌓는 동시에, 음악, 패션, 예술, 애니메이션, e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디 아워 비포 소개**

'*디 아워 비포*'는 예거 르쿨트르가 선보이는 인터뷰 시리즈로, 특별한 여정을 만들어낸 이들의 보이지 않는 순간에 주목합니다. 예술가, 가수, 배우, 운동 선수 등 각 분야의 인물들과 함께하며, 탁월함과 창의성, 그리고 헌신이라는 메종의 가치를 조명합니다. 각 에피소드는 한 인물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순간을 돌아보는 동시에, 그 이전의 준비 과정과 고민, 그리고 묵묵한 노력의 시간을 함께 비춥니다. 워치메이킹의 장인 정신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예거 르쿨트르는 탁월함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진정성 있고 담백한 시선으로 풀어낸 '*디 아워 비포*'는 열정과 절제 그리고 오랜 헌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온 이들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 아틀리에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82 곳의 아틀리에, 108 가지의 공예, 그리고 69 가지 시그니처 기법을 포함한 총 235 가지의 노하우가 한데 모인 매뉴팩처 아틀리에에서는 독창적인 기술과 아름다운 미학, 그리고 절제된 세련미가 한데 어우러진 탁월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이 탄생합니다.

**jaeger-lecoultre.com**